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Union Maritime boosts LPG fleet with order at Hyundai Mipo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했다고 발표한 40,000CBM급 LPG선 1+1척의 발주처는 영국의 Union Maritime이라고 보도됨. 전통 연료 추진 선박으로 발주됐는데, 계약 조건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dual-fuel 추진 시스템 업그레이드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가는 적당 4,800만달러라고 보도됨. (TradeWinds)

대우조선해양 VLGC 옵션분 1척 보유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12월 일본 선주 Iino Kaiun으로부터 91,000CBM급 VLGC 1척을 수주할 당시 옵션분 1척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의 선가는 8,000만달러이며 Iino Kaiun은 오스트리아 화학 회사 Borealis와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대법,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소송 파기환송...사실상 승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됨.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후 5년 2개월 만으로,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다고 보도됨. (연합뉴스)

Clarksons rate index rises further after strong start to 2021

영국의 해운조사기관 Clarksons에 따르면, 벌크선, LNG선, 컨테이너선 선사들 위주로 2021년 기분 좋은 출발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지난 주 Clarksea Index(해상운임 지표)는 일일 15,668달러로 전주대비 +3% 상승했으며 이는 2020년 평균 대비 +6%, 지난 10년 대비 +30% 상승한 수치라고 보도됨. (TradeWinds)

Hot LNG shipping market seen as possible stronger seasonal trend

계절적 수요와 LNG운반선 공급 부족으로 LNG 시황이 기록적인 호황을 기록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브로커리지 & 컨설팅 업체 Poten & Partners에 따르면, 미국산 천연가스가 유럽이 아닌 아시아를 향하게 되면서 증가한 톤마일(tonne-mile)이 운임 강세의 주 요인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Venezuela oil output plummets to lowest level in more than 70 years

지난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절반 가량으로 급감하며 194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일평균 557,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으며 이는 2019년 101.3만배럴 수준에서 45% 감소한 수치라고 보도됨.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압박과 부실경영이 주 이유라고 보도됨. (Upstream)